

인간은 '지금-여기'라는
일상 속에서만 살아 있고, 존재하고 있다.

일상 지음

日 常 知 音

KIM CHUL

일상 지음

日 常 知 音

인간은
‘지금-여기’라는
일상 속에서만
살아 있고,
존재하고 있다.

인생가人生家lifeist는
일상日常life을 신선新鮮한 재료로 파악하고
이를 자기 성정性情의 구상構想대로
구현具現해 내는 삶의 예술가life-artist이다.

일상을 일용할 양식과 음료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복지福地,
자기 삶터eco land의 거주자이다.

이런 식式이 일회일생一回一生을
나로 잘 살다 가는 묘리妙理이다.

목차

01	성정	性情	6
02	싫음	Liking	7
03	이이	而已	9
04	터무니	싫음 어룽	10
05	호흡	呼吸	11
06	사색	思索	12
07	파악	把握	13
08	모색	摸索	14
09	서사	書寫	15
10	에고 랜드	自我世上	17
11	에코 랜드	自己生態	19
12	일생요리	一生要理	20
13	일상요리	日常料理	22

14	어루만짐	撫	24
15	더듬어 찾음	摸	25
16	손으로 다룸	掌	26
17	몸소 삶	經路	28
18	사이	間	30
19	구현	具現	32
20	나와 있음	There is with me	34
21	예술	藝術	36
22	사역	事役	38
23	역사	役事	40
24	일상	日常	42
25	야기	惹起	44
26	여기	Hic	46
27	작미	作味	47
28	풍질미	風質味	49
29	신진대사	新陳代謝	51

목차

30	유명	有命	53
31	부요	富饒	55
32	지움 · 지음 · 지임		57

성정

性情 · Temper

성정(라틴어 temperare: 혼합, 조율, 조절하다)은 인간을 조화롭게 구성된 생명 모음체로 존재하게 한다. 각 사람의 본성本性nature이며, 내면의 바탕과 상태이다.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성정性情을 가지고 태어난다. 기질, 감정, 성품, 정서의 결이 성정이다. 곧 인간의 고유한 내면의 구조이다. 성정은 때로 굽이치며 흐르고meandering, 때로는 넘쳐흐르면서overflowing 고요와 평온으로 모여드는 인간 본연本然이다.

성정temper은 이미 정리된 이념, 신념, 관념이 아니라, 일월성신 변화를 통해 기후와 기온이 조절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성질이나 상태를 조절하는 대기大氣이며 토양土壤이다. 그 풍수風水의 종류는 지구상에 있는 사람 수이다.

싫음

Liking

애호愛好 · 취향趣向 · 상태狀態

‘싫음’은 본능적인 추구나 선호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에너지 플랜트plant能源인 성정에서 공급되는 능력competence이다.

이 능력은 물리적 힘이냐 권력의 행사인 Power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나의 존재의 성정이 주는 능력은 그 라틴어 어원 competere(com: 함께 · petere: 추구하다, 향하다)에서 그 뜻을 알 수 있다. 내게 적격인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나의 성정에서 흘러나오는 싫음liking(애호愛好, 취향趣向, 상태狀態)은 내 존재의 컴피턴스competence이다.

Competence는 “내 싫음이 하는 능력”.

Power는 “타인을 휘두를 수 있는 힘”.

삶은

나의 autonomy 자율을동自律律動

(그리스어 autos: self · nomos: norm).

삶은 내 삶을 세계 위에

특별하고 고유한 일상으로 지어 내는

인생술가lifeist의 자율치혼自律治魂.

이이

而已·尔尔

‘이이’란 그저 그뿐이라는 뜻이다.

과정에 충만히 거하여 있을 뿐,

그 어떤 과장도 필요 없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대로, 몰두沒頭
한 상태 그대로가 나일 뿐.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나 역시도 개별체로서
영원불변하는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저 ‘이이’
일 뿐.

이토록 명명백백한 원인, 근거, 이유가 없음에도 생명 모음체
인 나의 몸뚱이는 자기만의 성정을 지니고 자신으로 살고 싶
음을 표현하는 의식의 존재가 된다. 이때 생명의 존귀함과 일
상의 소중함이 검푸른 새벽빛에 윤곽으로 보인다.

터무니

싫음 어릉

삶터는

내가 몸으로 머무는 자리다.

내 싫음을 지을 삶의 기초the fund of life(라틴어 fundus: 바닥, 토대, 기초)이다. 뻔히 반복되는 일상이 깊고 심오하게 **profoundly** 탈바꿈되는 작업을 위해 설립되어 있는 재단**foundation**이다.

삶의 터전으로서의 풍수風水와 지地는 옥을 다듬어 놓은 듯 理, 일정한 무늬가 수놓아지는 법이다. 거하며 살아가는 나의 성정과 싫음이 그 터에 무늬로 새겨져 있다.

지금 이곳 나의 삶터는 나의 성정의 기운을 품고 있고, 고유 non-like-ness하게 무늬로 수놓인 나의 싫음liking이 어릉저 거울 속 나인 듯 나를 바라보고 있다.

호흡

呼吸 · Respiration

호흡은 있음am-ness이다.

숨 쉬는 동안만 나에게 생명이 존재한다.

인간의 생존법은 먹고, 자고, 마시고, 숨 쉬는 방식이다.
그중에서도 호흡은 기분氣分(한의학: 인체의 기운에서 원기元氣)을 좌우左右한다.

먹지 못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잠을 못 자면 보통 3일에서 6일, 물을 마시지 못하면 역시 3일에서 6일 내에 목숨을 잃는다. 그런데 호흡을 못 하면, 3분에서 6분 내에 죽는다.

호흡이 있는 나, 그 호흡이 매분마다 내게 주는 생명과 활력으로 인해 일상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다. 이에 지금 여기, 호흡이 있는 나는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하며 즐겁게 살고 있는 것이다.

사색

思索 · Speculation

사색은 실행력 없는
사념思念이나 잡념雜念이 아니다.

사색은 상常스러운 말과 글, 짧은 영상과 고만고만한
이미지들의 무성한 잡초밭과 같은 일상을 갈아엎는다.

이 현상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사색은 엑스커베이터
excavator이다. 나의 내면, 세계의 내면의 지형을 들이파
뒤집어 놓는 굴착기이다.

깊이 생각하면, 안으로 들어가 안녕하고,
깊이 찾으면, 밖으로 나아가 평화하게 된다.

깊은 물속에 있어 비치지 않은 기개氣概,
높은 창공에 있어 보이지 않는 기상氣像.
반면, 엮어맨 덩굴, 뒤덮은 잡초,
무실無實한 과수果樹.

파악

把握 · Understanding

나는 알고 할 때, 붙잡히지 않는다.

나를 수정하려 할 때 역시 붙잡히지 않는다.

알려고 했다면 잡고 쥘다. 종양을 제거하려고 했으면, 메스 scalpel를 손에 잡아야 한다.

파악은 이해도, 납득도, 수용도, 거부도, 판단도 아니다.
파악은 단어 의미대로 내가 직접 잡고 쥐어 보는 것이다.

손끝과 손가락, 손바닥과 팔 근육으로부터 전달되는 신호들
을 내 몸 전체를 덮고 있는 피부가 해독하는 살결의 얇
knowledge of skin이다.

나를 잡고 있는 것들이 아닌

내가 내 손으로 잡고 쥐고 있는 것들이

나를 새로이 깨우친다.

모색

摸索 · Groping

모색은 아는 길들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가고 싶음과 가고자 함이 있는 미답未踏을 더듬어서라도 찾아가려 하는 행동이다.

보이지 않고, 본 적이 없기에 눈이 아니라 손으로. 해 왔던 바나, 들었던 바가 아니기에 정보가 아니라 촉감으로.

나는 인생 어느 시점부터 내가 가 보고 싶음이 있는 길은 가 보지 않은 길임을 알게 되었다.

가로수 길도 없고, 가로등 길도 아니기에 빛 없는 수풀, 어둠 중앙에서 오직 성정의 나침반과 싶음의 손전등 하나로 어디로가, 어떻게가 내 길인지 찾으며 더듬길로 걸었다.

어둠 속 손끝과 발끝, 여기 내게 있는 감각.
그것을 신뢰하며, 그쪽으로 모색하여 간다.

서사

書寫 · Pencilling

자기 삶을 일상으로 구현하는
일상 지음을 위해서는 펜슬링pencilling
작업이 필요하다.

삶을 종이나 디바이스에 쓰거나 스케치하는 것이다.
매일 엔트리entry 수가 더해 가고 날씨가 바뀌겠지만, 늘
바뀌는 현실에 투입하고, 그에 동조同調하기에synchronize
아주 맞춤하다.

나에게는 확실한 나만의 체험이 있다.

꽤나 오랫동안 내가 쓰고 그린 글과 그림 그리고 심지어
구입한 그림들 거의 모두가 현재 내가 사는 지역의 풍광風光
(scenic eco)이고, 내가 사는 방식의 풍격風格(life style)이며,
내가 사는 일상의 풍습風習(daily pattern)이 되어 있다.

쓰면서 그리면서 살고,
썸과 그림이 삶이 된 채 살고 있는 것이다.

서사書寫pencilling는 모사模寫copying나 묘사描寫description가 아니다. 펜슬링은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것과 나는 이제 무엇을 진정으로 싶음하는가라는 종지와 연필의 마찰-발열 현상이다. 종지 위에서 발생하는 열이 0도에 가까운 초미세량이라도 그 측정 수치는 무의미하다. 마찰로 열이 생기고 그 위에 글과 그림이 생기기 때문이다.

성정에서 흘러나와 명상과 성찰을 통해 채굴된 싶음이 현실의 두터운 검은흙humus을 뚫고 미세한 따순 숨을 틔우는 현장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나의 펜슬링은 내 일상을 스스로 재배합culture이다. 검은흙humus과 마찰하며 열을 일으켜 호흡하고 기동起動하는 형상human을 창조함creation이다.

에고 랜드

ego land · 自我世上

Ego land는 자신이 자기에게 반대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의 땅이다. 자아ego가 치리治理를 하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로봇타robota(노역, 부역, 강제 노동)를 하는 로봇 인간robotized human의 사회라 할 수 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람이 본토, 친척, 아비의 땅을 떠나듯 ‘등지고 앞을 향해 떠나야 할 땅’이다. 자아 세상ego land은 과거의 행위와 사건에 대한 기억이다. 개성을 지닌 개인에게 개념, 이념, 통념, 신념을 일생을 통해 주입하는 가상국假想國 곧 아뢰야식(불교: 거대 기억 저장소)이다.

먹고 살기 위해 평생 무엇인가 하고, 벌고, 쓰고, 주고, 받고, 잡고, 잃고, 좇고, 찾고, 참고 살아가지만 정작 자신과의 만남, 대화, 친교, 동거, 흘갈吃喝(먹고 마심), 흥락興樂에 대해서는 경험한 바 없다.

자아들의 진영陣營camp인 사회는 사회에 필요한 사회인 社會人 양성과 증가의 목적을 위해 그에 필요한 캠페인 campaign을 내내 해 왔다.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만 지금-여기서-이렇게, 나 자신自身과 내 성정性情이 일상공거日常供居하도록 이집트에서 수세기 노예로 살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Exodus시킨 모세가 되어야 한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히브리 민족도 노예가 아니었기에.

그렇지 않으면, 자아ego 파라오pharaoh는 과거와 기억의 플랜테이션에서 나를 숨 가빠, 늘 바빠 고되게 일하다 명命을 다하게 할 것이다. 숨덩어리氣塊로 둘러싸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福地에 발 들이지 못하도록 묶어 둘 것이다.

에코 랜드

eco land · 自己生態

Eco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 오이코스οἶκος로 집, 거처, 터이다. 경제나 경제학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 Economy(살림살이 준칙)도 여기서 파생되었다.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사는 상태,
진정한 Eco는 생명 존재의 거처이며,
동시에 자신을 가꾸고, 키우고, 결실하게 하는
일상생활의 자리이다.

Ego land를 떠나 Eco land로 건너가야 한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가라, 가라, 저 언덕으로 가라, 완전히
저 언덕 너머로 가라).

거기서 비로소 생명이 활동하고,
기꺼이 수고하며, 애쓰며, 감당하며,
자율하고, 자존하고, 자유롭게 된다.
나롭게, 나로이, 나답게, 그렇게 산다.

일생요리

一生要理 · *The summary (catechism) of life*

인생에는 요긴要緊한 이치理致가 있다.

Ⅰ 군인群人의 삶과 삶

1 *Life passes unknowingly.*

인생은 무의식적으로, 무지 중에 지나간다.

2 *Life passes passively.*

인생은 주어진 대로, 활기 없이 사는 것이다.

3 *Life passes passably.*

인생은 그저 웬만하게, 쓸 만하게, 무난하게, 적당하게 살면 된다.

II 개인個人的의 삶과 삶

1 *Life passes extremely quickly.*

인생은 극도로 빠르게 끝맺어진다.

2 *Life passes into liking.*

인생은 자기 성정性情의 ‘싫음’이 되어 살아진다.

3 *Life passes itself mundanely.*

인생은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실제적으로 경험된다.

군중이나 집단의 일원이 아닌, 자기 개인으로 사는 이는 이 세 가지 원리를 인정, 숙지하고 그러한 조건과 상태 속에서 일상을 짓는다.

개인 일상 지움의 요리要理summary, ABCDE.

Accept it	받아들여라
Become in it	바로 거기서 자신이 되라
Change in it	그 속에서 변화하라
Deal with it	직시하고 대응하라
Embrace it	자기 삶을 품에 껴안으라

일상요리

日常料理 · *The handling of mundane life*

인생가人生家lifeist는 일상을 재료로 맛내는 요리가savorer이며, 깊이 즐기는 음미가appreciator이다.

일상이라는 요리 재료의 특성과 상태는 이렇다.

- 1 불안정하고unstable
- 2 예측할 수 없고unpredictable
- 3 통제되지 않는다uncontrollable

그렇기 때문에 인생가人生家lifeist로 사는 나에게는 재료를 다루는 몇 가지 취급법handling이 있다.

- 1 부용담신不用擔心 — 너무 걱정 말기
- 2 부용지도不用知道 — 모두 알려 하지 않기
- 3 불가능통不可能統 — 통제하지 않기

일상은 삶이 알아서 선택chef's choice하여 매일 새벽같이 배달해 주는 신선 재료이다. 나는 전적으로 맡기고 (일본어 任せる(마카세루): 맡기다 → お任せ(오마카세)) 온전히 신뢰한다.

내가 하루만큼 먹고 마시고 즐길 요리를 짓고 살 수 있도록 만나manna(히브리어 מַנָּה מַן(man hu):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가 매일 공급되는 것이다.

예기치 못한 기쁨에 사로잡히게 된다surprised by joy. 내 일상의 양식樣式.

어루만짐

撫 · *Touch tenderly*

어루만짐은

나 아닌 상대의 살갗에 내 심정의 다정다감이
손끝에서 분무噴霧되는 애정의 분사噴射이다.

말로도, 글로도, 이미지나, 영상으로도 전달하지 못하는 손수
우려 드림하는 보리菩提茶(보리菩提: 산스크리트어
bodhi, 깨달음) 한 잔이다. 그 온도는 36.5 ° C.

동물들이 서로의 상처를 핥아 줄licking 때, 사람이 서로
사랑으로 어루만질touching 때, 나은 기분, 낫는 기쁨, 나눈
쾌감을 경험하여 다정多情하고, 다감多感하고, 다기多氣
(두려움 없이 단단한 마음)한 존재들이 된다.

어루만짐은

고요하고, 고상하고, 고유한
둘 간, 둘만의 어우러짐이다.

더듬어 찾음

摸 · Grope

우리는 우선 손을 쓰려 한다. 정보보다 감각이 앞선다. 얹보다 손, 들음보다 촉감. 막막寞寞할 때조차 그 둘러막힘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다. 실마리를. 갈피를.

모색摸索은 흑암 속에서 이전에는 보였던 것도 보이지 않고, 알았던 것도 알 수 없는 것이 되었을 때, 그래도 찾으려는 동작groping motion in the dark이다. 빛, 조력자, 구호자救護者가 없어도 더듬어서라도 찾는다.

모색이라는 운동은 나의 싶음의 종자가 심기고, 싹 틔우고, 자라나 어엿한 과실수가 될 때까지 요要하는 불가결不可缺의 과정이다. 바로 못 찾는다. 모색하고 있는 자신을 찾게 된다. 어둠 속에서 오히려 두 눈을 감고 심수心手를 꺼내어 다시 더듬는다.

늘 충분히 분명하지 않은 바로 지금 여기서.

손으로 다룸

掌 · Hands-On

싫음은 성정 곧 본성이 그 시원始原이지만,
발원하여 일상의 강이 되어 흐르려면
숨手씨用가 발휘되어야 한다.

몸통 위로 머리가 붙어 있고, 그 옆으로 팔이
양 갈래로 뻗어 있다. 손이 그 끝에서
머리와 가슴에 품은 도면에 따라
직접 만지고, 잡고, 놓고, 다듬고 하다가
결국 물꼬를 튼다.

일상이라는 경로經路 앞에(pro-) 때마다 무심하게 툭툭 던져
지는(ballo) 문제들(problems)은 내 생활 줄기를 흐트러뜨
린다.

이때 나는 자문自問한다.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가
아니다.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해야 하는 것인가?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자답自答한 후에는 나 자신의 두 손manus으로,

1 *Manage*

어떻게든 해내려 하고

2 *Manner*

나다운 방식과 태도로

3 *Maintain*

내 중심과 중요를 유지하면서

나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문제들 속에서 숨씨를 부리며 여기
이곳의 나 자신을 주장主掌한다.

제 손으로 삶을 만지는 자만이
제 뜻 없이 늘 요동치는 운명을
동무 삼아 서로 두 손 잡고
저기 곧 이르게 될 바다까지
천지간 흥겨워 춤추며
흘러갈 수 있다.

몸소 삶

經路 · In-Person

몸소 산다는 것.

자기 인생길 위에서 지금을 자신이
직접 감지하고 감각하는 것이다.

누군가 건네준 지도가 있으면 좋고,
없다 해도 내 속 등불 준비해
나의 길을 찾으며 오늘을 걸어가는 것이다.

내가 손수in-person 경로經路를 만들어 갈 때, 그 길은 나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보고 싶어 해 왔던 나에게로 데리고
가 준다. 둘은 그렇게 만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웅숭깊이
감당해야 자기 경로가 된다.
몸소 몸씀이 자신만의 경서經書가 된다.

숨차게 작업만 하는 일 용도의 손이 아닌 나의 싶음을
전달받은 손의 일을 한다.

대기에 둘러싸인 생명 행성 지구와 같이 숨덩어리氣塊에
싸여 존재하는 내 몸은 몸소 자기 궤도를 따라 공전하고,
자전하고, 회전할 때 몸소 생령生靈living being으로 살
수 있다.

지금
내가 몸 놓은
여기,
그 노상路上에
내가
몸소 살아간다.

사이

間 · In-between

사이사이 공간이 있고
그간에 시간이 흐르고
그들 사이에 인간이 있다.

空
時 間
人

사이間는
공간, 시간, 인간을
개념과 뜻으로 완성해 준다.

사실 사이間 자체는
공空白도, 시時도, 인人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이

비어 있는 것도, 채워진 것도,
결핍된 것도, 넘치게 가득한 것도 아니다.
단지 때를 따라 그저 그러하게 있는 상태.
순간마다 변해 있는 상태.
그때 그렇게 그뿐이다.

인간으로 시간 속에서
공간 안에서 지내는 동안,

간간間間히

오직 사이間가 되어 홀로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때마다 변화하는 존재인
나는 지금, 여기, 그대로 살 수 있다.

담담, 담백, 담대.
단순, 단아, 단단.
기쁨, 기쁨, 기개.

구현

具現 · Embodiment

내게 주어진 성정性情은 내 신체身體와 함께 생명체로 존재하고 있다. 성정은 좋음liking, 신체는 본능本能으로 작용한다.

소리sound가 공기air를 매체媒體medium로 전달되는 것처럼, 몸과 물질세계는 좋음liking의 매체이다.

제 본성정本性情에서 샘솟은 좋음은 본능本能의 충동impulse과 달리 구체具體로 구현具現embodiment되는 본성本性的의 성육신成肉身incarnation과 연결되어 있다.

가슴 깊이 있는 나의 좋음은 일상에서 내 몸과 하나 되어 세계를 출산出產bear(만들어 냄. 또는 그 물건)한다. 실체로, 상태로, 무늬와 색채, 향미를 품은 존재물을 생기게beget한다.

동방同房, 체회體會, 체미體味. 중국어 표현들이다.

남녀 간 사랑의 은유적 표현들이지만, 맛보아 삶의 실재를
알려 준다.

나와 싶음이
함께 머물고,
내 촉각으로 느끼고,
내 미각으로 맛볼 수 있는 것.
구현된 나의 싶음이다.

나와 있음

There is with me

이 글을 쓰는 이 시점,
아이패드와 타이핑되는 문장들은 나와 있다.
이 사실은 오류 없는 완전한 진실이다.

‘나와 있다’라고 하면, 두 가지 생각이 든다.

- The result has with me. 결과는 나와 있다(has been given).
- The result is without me. 결과는 나와 있지 않다(has not been there).

결과로서의 답이 필요한 문제들,
답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
답이 절실한 상황들.
인생살이 전형적인 모습과 상태이다.

하지만, 이 둘 다 나에게는 별 영향이 없다. 사실 존재는 결과도 답도 필요 없다.

인생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중간에 펼쳐지는 자신의 삶에 대해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대체 결과와 답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어지냐는 것이다.

과정만 있고 결과는 몰라도
삶은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There is with me.

내게는 결과와 답을 아는 신령한 능력은 없지만, 나와 있어 내게 있는 것 곧 나의 존재와 활력을 나 자신과 그리고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나누며 살고 있다.

나와 있다It has already been given!

예술

藝術 · Art

예술은 학예theory(그리스어 θεωρία(theōría): 보다, 관조)와 실행praxis(그리스어 πράξις(praxis): 행동, 실현)의 합작合作이다.

성정이라는 생기生氣는 싶음theory as liking과 몸씀praxis을 융합시켜 어떻게든 예술이라는 생명生靈living being으로 기류氣流 변화를 일으키려 한다.

그러나 생명을 지니고 있는 사람 모두가 예술가artist 혹은 인생가lifeist가 되려 하지는 않는다. 너무 이해하기 힘들고, 과정을 견뎌 내기 고단하고,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인가things를 만들어 내는 기술을 가지고는 있지만, 예와 술이 합가합家하고, 혼魂과 백魄이 합작合作할 때 시절을 좇아 출생되는 생명의 새로움이 없다.

예藝는 學藝 안에 지닌 예성artistic temper

술術은 技術 밖에 나타내는 기법artfulness

이해와 표현, 구상과 구현. 그 사이를 일상길을 통해 무수히 왕래할 때, 한 인간은 예술의 풍격風格을 키워 낸다. 예술은 이론과 기술,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둘 다 필요로 한다. 하나에서 다른 하나. 그렇게 둘이 하나.

한때 프랑스 축구를 아트 사커라 했다. 축구soccer는 예술 art이 아니다. 운동sport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스포츠를 예술로 보이게 했다. 출중한 기술은 이미 그들의 것이었었고, 그 기술들이 질료로 사용되어 예술품artifact 같은 경기로 전시展示되었다.

나의 일상을 대하는 태도가 작품이 되려면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이 독특하고 깊은 예술 자체가 되어야 한다. 지금 이 일, 여기 이곳의 캔버스에 그림 그릴 참 잘 간 하루.

사역

事役 · Live & Work for

사역事役(사람, 동물 등을 부리어 일을 시킴)은 자본주의
현대 사회에서 제거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다. 어쩔 수 없이,
누구라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며 그런 중에
살고 있다.

Ego land의 거주자들은
항상 무언가를 위하여(爲) 행위한다(爲).

위위인爲爲人.
무엇을 위하여 행위하는 존재.

누군가, 무언가 반드시 외부 대상이 있다.
사랑하는, 마땅히 그래야 하는, 목표하는….

본인 스스로 인지하고 있듯
‘~을 위한 목표’에 자발적으로 부림당하고,
일상은 온통 행위로만 채워진다.

사역은
노역勞役toil이 되고
부역賦役corvée이 된다.

자신의 삶과 죽대가 없는 행위는
실제로 누구를 위해
무엇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일까?

그러한 사역의 삶은 그 최선의 결말이 사회 각본에 등장하는
역할들 중 하나 혹은 몇 가지를 군群 무대 위에서 착실히
감당했다는 인정을 받게 되는 연기자 인생이다. 무리群
무대의 동료들과 군중들의 박수는 받는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 정도이다. 그뿐이다.

역사

役事 · *The motion of presence*

역사役事는 대공사大工事 혹은 하나님이 행하여 이름 (기독교)이 그 사전적 뜻이다. 곧 생명生靈이자 신의 형상 Imago Dei인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작업作業이다. 역사歷史history라는 이전 그곳에서 경험하고 성취했던 사건이나 일들이 아니다.

역사役事는 자신의 과거 행위나 기억,
다른 이들의 행동이나 기록이 아닌,
신령神靈과 진정眞情으로 움직여 작업하는
지금 여기 나의 존재의 역동함이다.

Ego land의 바다를 헤치고
Eco land에 상륙한 자는
일을 좇아 살아가지 않고,
자기 성정性情의 샘에서
싫음이라는 자신의 일을 길어 낸다.

일task이 먼저가 아니다.

자신의 심정心情emotion이 먼저다.

싶음의 감동感動(싶음의 작용에 의해 마음이나 영혼이 움직이는 것)으로 안에서 밖으로 방사되어**emitting** 동작하는 **motion** 것이다.

이것이 역사役事의 흐름current(라틴어 currens: 현재분사, 달리는 중)이다.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본성을 닮은 인간을 만들자!

Let's make human beings in our image & them

reflecting our nature! (창 1:26)

역사役事란, 지금 여기 나의 일상에서 성정이라는 신神의 반영을 싶음의 흐름을 따라 움직여 행하는 것이다.

기꺼이. 기쁘게.

일상

日常 · Mundane life

프랑스어 *mondain*이 사교적이고 세속적인 교제와 관계라는 세련된 즐거움을 표현한 반면, 영어 표현 *mundane*은 평범하고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뜻한다. 그런데 두 단어 모두 라틴어 *mundus* 곧 우주, 세상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 일상은 세계와 우주의 다른 이름이다.

우주와 세계는 특수한 계층의 사교social intercourse나 네트워킹networking과 같은 사회적 이해관계利害關係에 위치하지 않고, 오히려 깨어 있는 일상생활에 여여如如(불교: 있는 그대로as-it-is-ness)하게 자리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가늠할 수 없는 초거대 우주 공간 속에서, 일상의 날들이 일없이 제 궤도를 따라 여상如常히 돌고 있다. 참으로 특별하고 특이한 현상이다.

잠시 눈을 떠서 잘 좀 보도록 하자!

나에게 주어진 일상은 우주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굽이치는
생명류生命流이자, 가장 밀도 높은 에너지장能源場이다.

언뜻하면 일상은 전혀 극적이지 않다.
다만, 사는 동안 매일 한결같이 내 앞에
나타나 내가 사는 자리가 되어 준다는 점에서
위대하고 경이롭다.

눈을 들어 우리러 감사할 때,
평범한 일상 나날에 우주가 있다.
삶의 세계가 나의 특별한 결념으로 있다.

The world is in my mundane life!

야기

惹起 · Evocation

야기하다는
무언가를 끌어내고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이다.

야기할 수 없는 존재는 자기 자신의 등장이 없는 무수한 쇼츠 shorts들이며, 스타카토들이다. 보고, 듣고, 좋아요 하고, 구독한다. 짧게.

야기는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이 자기를 보고, 보이는 세계로 끌어올릴 때 일어난다. 야기는 제 존재가 등장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살고 보고-살아 보고 식式으로 앓고, 내가 보고 살고 내가 보며 산다.

서사narrative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시간 속에서 의미 있게
구성해 나가는 방식이다.

한 인간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엮어 서사로 답하는 능력이 이 시대에는 부재한다. 오늘날의 인간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는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할 뿐이다.

한병철, 『서사의 위기』

내가 야기한 것만이 내가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의 실체이다. 나 자신의 서사narrative가 없다면, 나는 정원에 수없이 깔린 매끄러운 비스무리한 자갈들 중 하나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나는 정원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바라보며, 가꾼다.

소개의 내레이션narration(라틴어 narrare: 서술하다) 없이 이미지를 보여 주며 관심을 끄는 상품 광고 advertisement(ad-: ~쪽으로 · vertere: 돌리다)처럼, 좇대 없는 사람들은 두리번거리다 제 삶에서 무엇 하나 야기하지 못한다.

여기

Hic

Ego sum hic. 나는 여기로 있다.

시간에는 존재가 머물 곳이 없다.
공간 있음에 존재가 깃들 수 있다.
예 아닌 저곳은 자아ego의 기만일 뿐,
여기, 이 자리에 내가 호흡하며 있다.

또한 ‘여기’는 위치가 아니라
나의 존재가 현현顯現하는 유일한 순간이다.
내가 실제로 있는 자리, 지금을 볼 수 있다면
어디서든 나는 여기로 있다.

지금 여기가 없으면, 내 삶은 항상 언제,
어디인가이다. 없다. 내가.

여기여야 나의 결념 된 삶이 있고,
내가 지은 일상은 내 지음知音이 된다.

작미

作味 · *Crafting flavor*

재미라는 말은 작미作味에서 비롯되었다.

단순한 오락이나 쾌락이 아니라
삶의 맛을 스스로 빚어 가는 것,
내 일상으로 감치는 향미香味를
만든다는 뜻이다.

작미作味에서 작作에 해당하는 영어, Craft는 그 사용 초기에는 힘power과 능력ability을 지칭하는 단어였다. 이후 점차 정신적 능력에서 솜씨 즉 손재주, 기술의 뜻으로 구체화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미味flavor는 맛taste과 향aroma을 의미했다. 단순히 미각이 아니라, 코와 입이 동시에 사용되는 향미香味라는 감각적 경험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그 의미가 맛, 개성, 분위기 등으로 확장된 것이다.

사람의 즐거움과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일상을 향미 있게 지어내야 한다.

작미가作味家.
그는 자신만의 맛과 뉘앙스nuance를
일상 속에서 만들어 내는 사람이다.

일상이라는 삶터에서 놀이를 아는 순진한 정신과 재미에
몰입하여 장난作亂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날을 경험하며 산다. 천국에 들어와
있는 이.

미味는 내 삶의 아름다움(美)이다.
음미, 풍미, 취미, 성미, 감미, 기미氣味…
이들을 나의 삶으로 작作한다.

재미없는 삶은 고역살이일 뿐.
나는 일상으로 재미를 지을 뿐.

풍질미

風質味 · Wind, Quality & Savor

풍風은 불다 안 불고,
질質은 알 듯 모르고,
미味는 천차만별...

이 셋이 나와 운우雲雨로 합일合一될 때,
비로소 내 존재와 일상에
풍격風格과 신선新鮮이 깃들어 스민다.

Ego land 거주자들은
급, 품, 격(級品格)이라는
거울로 자신을 보고,
그 색유리로 세상과 타인을 가늠한다.

급이 제아무리 높아도,
품이 무게 있는 질량質量이어도,
격이 우월하게 드러나도,
삶의 풍수風水에 수놓은 자기 무늬와
양질良質의 흑토黑土humus가 없다면...

인생가人生家lifeist 아닌
허무가虛無家vainist.

급級, 품品, 격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풍風은 멋을 머금음.

질質은 됨을 지니임.

맛味은 삶을 향유함.

있으면 좋고,
깊어지면 더욱 좋다.

신진대사

新陳代謝 · Metabolism

신진대사metabolism의 어원인 그리스어 메타볼레metabolē는 변화와 넘어섬을 뜻하는 μετά와 던지다의 의미인 βολή의 합성어로 멀리 던짐으로 변화한다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Eco land의 주민이든 Ego land의 거주자든 인간이기에 생리적으로 생합성生合成biosynthesis을 하며 생명을 유지한다. 그러나 의식意識consciousness과 생활철학 영역에서는 서로 다른 합성을 하며 살아간다.

Ego land의 인간은 계합성計合成calculate-synthesis을 한다. 매끈한 조약돌(라틴어 calculi: 조약돌)로나 손가락 열 개(計 = 言+十)를 사용해서 계산하고, 계획하고, 계리計利함으로 살아간다.

신진대사新陳代謝metabolism는 낡은 것을 내보내고 대신 새것을 생성하는 항변恒變하는 생명체의 불변不變의 생존 원리이다. Eco land 사람들은 식물이 광합성光合成

photosynthesis을 하듯, 성합성性合成temperysynthesis을 하며 살아간다. 그 삶의 방식을 신뢰하기에 선택한 생존법이다.

자기 존재의 빛 곧 성정性情temper을 흡수하여 대장장이나 토기장이와 같이 존재와 의식을 어루만지며 전체로 조정하고, 더듬어서라도 방도를 찾고, 손으로 불같이 치고, 굽고, 물같이 식히며, 만져 땀으로써 결국 조화롭고 균형 있는 일상을 부산물로 생산한다.

일상 지음이란 매일 더 이상 나 아닌 나를 던져 버리고, 내가 되고 있는 나로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새로운 나를 지기知己alter-ego로 일상지음 日常知音으로 맞아들여 동방同房한다.

유명

有命 · *To have a life appointed*

‘유명有命을 달리하다’.

우주계에 존재하고 순환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잠시 부여되었다가, 생명 아닌 다른 것으로 變化變(사물 혹은 상황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뀜)된다는 뜻이다.

운명運命fortune은 『신곡』神曲the Divine Comedy에서 단테가 언급한 고대 로마 여신 Fortuna처럼, 변덕스럽고 제멋대로이다.

또한 운명fate은 그 라틴어 어원 fatum의 의미처럼 이미 말해진 것something said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살게 되는 정해진 기간이자 어떻게 살다 갈지에 대한 예정된 조건이다.

나의 운명이 로마 여신처럼 불확실한 것이든 신의 섭리에 의해 정해진 것이든, 나의 중심이 되는 싶음liking은 유명을 달리할 때까지 지금 여기 이렇게 명命 있음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운명이 주는 무엇이든 감내하며 살 수 있게 해 준다.

나의 유명有命은...

부모나 타인이 작명한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림有名이 아닌,
지금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음을
깊이 자각하며, 운명이 나와 좋은 친구로
마주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 달려 있다.

부요

富饒 · *Wealth*

영어 *wealth*는 그 단어의 어원이 *wela*이다. 그 뜻은 어떤 특별한 탈이나 걱정 없이 잘 지내는 상태나 상황 *a state of being well*이다.

단지 금전과 소유물의 많음이 아닌
자신의 삶이 전체적으로 온전하고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한자로는,
부富는 집 안에 쌀이 가득함,
요饒는 넘치고 여유 있는 상태이다.

실상 참된 부요는
작금昨今の 안녕하고 부족함 없는
일상생활의 흐름 *current*이다.

Ego land의 부는, 바닥없는 자기 결핍감의 심연에서 끝없이 소유하고, 축적하고, 서로 비교함으로 안정과 소유를 위해 살아가는 어유부중魚遊釜中(술 안에서 노니는 물고기), 결국 절대로 만족한 삶을 향유하지 못하고 명命셰프에 의해 요리될, 사망死網 곧 가두리망net pen 속 물고기와 다름없다.

Eco land의 부요는...

자기 생명의 있음과 거할 곳, 먹고 마실 것,
고요와 평화, 글과 음악, 명상과 몸쓰,
싶음과 실현, 흥금의 대화를 나눌 곁님들...

이들 있음에 늘 족하다 함이다.

My wealth is my everydayness!

(나의 부는 나의 일상성이다)

יְהוָה רָעִי לֹא אֶחָסֵד

O my shepherd!

I do not need a thing.

지움 · 지음 · 지임

Oblivion · Craft · Nudge

지움(지우다)은
지나간 것들을 적극적으로 망각하는 active oblivion
의도적인 행위이다.

지음(짓다)은
성정性情temper의 생명샘에서 길은
생수 곧 싶음liking을 마시며 일상을
나의 삶터eco로 만들어 가는 작업이다.

지임(지이다: A가 B에게 ~을 짓게 하다)은 나의 고요와 평안,
감사와 기쁨의 일상을 누군가가 자의로 와서 보려 할 때 come
& see, 던지시 툇 건드리는 넛지nudge식으로 그이도 자기
일상을 지어 볼까 하는 싶음을 그 마음에 야기하는 것이다.

오늘도 나는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 아침에 새롭게 만난 나를
나의 친구 삼아품友我, 나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이 여정
journey(프랑스어 jour: a day)은 어느 곳으로 향해 가든

어떤 문제를 던져 주든, 내가 나롭게 살게 하고, 더욱 깨어나도록 하는 일상을 매일 *tous les jours* 같이 짓는 산지產地가 될 것이다.

언제인가 나라는 생명 모음체로서의 소멸도 나 자신의 경험으로 나에게 살게 해 줄 것이다. 이것이 나의 성정에서 흘러나온 나의 싶음이다. 하여 지금까지와 같이 그 싶음은 언젠가 산지山地(뫓자리)에서 실현될 것이다.

어느 때에도—육신과 의식의 종료의 순간을 포함해서—나는 나 자신이 나로 있는 곳, 여기로 존재할 것이다. 인간의 생으로부터 무엇을 얼마나 더 어떻게, 더 다르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원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없는 자리에는 불안과 불평, 겁怯이 주인 노릇 할 뿐. 은총으로 주어진 삶의 주인 된 진정한 나眞如authentic-me는 자기 자신(그리스어 *autos*)으로 행하는 자(그리스어 *-hentes*)이다.

천부天賦의 성정性情에서 샘솟는 싶음liking으로 일상日常을 짓고 있는 진아眞我が 내 평생의 지음知音임을 여기-지금-이와 같이hic et nunc, sic 존재하는 나로 입증立證 authentication하는 바이다.

인생가人生家は
일상을 신선한 재료로 파악하고
이를 자기 성정性情의 구상대로
구현해 내는 삶의 예술가이다.

이런 식식이 일회일생一回一生을
나로 잘 살다 가는 묘리妙理이다.

일상 지음

日 常 知 音